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3)

제왕의 정치

帝王之治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지난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하였다. 오늘날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니 대통령을 옛날의 제왕(帝王)에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라는 점에서 같다. 결과 왕조는 있지만 옛날 제왕은 선대(先代)를 이어 받아 제위(帝位)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왕은 세습되는 것 같지만 사실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제왕도 뽑는 것이라는 느낌이다. 필자는 중국 여러 왕조에서 제왕이 등극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정리한 일이 있다. 결과 왕조의 황제도 길으로는 세습하는 것 같지만 여러 정치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통하여 이기는 쪽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서 '황제도 뽑는다.'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황제뽑기'라는 책을 쓴 일이 있다. 황제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암투는 오늘날 선거에서 보이는 갈등과 유사하였다. 그러니까 황제도 이해관계자가 뽑고 현재 대통령도 중요한 정치세력간의 다툼 속에서 국민의 투표란 그저 형식을 거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과 황제의 뽑기는 꽤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전에는 천하가 모두 황제의 것이라는 관념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 대통령에게는 그런 것은 없다. 또 대통령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제한되지 않고 전권을 쥔 황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다.

이러한 말은 형식 논리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전의 황제가 주변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제한을 받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이 권력의 제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반대로 오늘날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은 예전의 황제처럼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런 실례(實例)가 종종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는 트럼프 기소를 포기하였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대통령이 한 조지 가운데 황제나 할 수 있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과거 제왕의 그것과 별로 다르

지 않게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란 그 이름을 황제로 부르건, 대통령으로 부르건, 혹은 총리로 부르건 상관없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근처에 갔다가 잘 못하여 역린(逆鱗)하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그만큼 막강한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새 권력자가 등장하면 과거의 정적(政敵)과 그 세력을 몰아내고 탄압하는 것쯤은 의례 벌이지는 일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아서 최고 권력자가 바뀌어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자의 교체에 있었던 일이 원대(元代)에 있었다. 무종(武宗)이 등극하고 5년 만에 죽고 그 동생 인종(仁宗)이 등장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사실 인종은 그의 숙부인 성종(成宗)이 죽자 숙부계열이 그 뒤를 이으려는 이른바 내난(內難)을 펼쳤고 전방에 있는 형 무종을 황제에 오르게 하였다. 무종도 등극하자 자기를 황제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동생을 황태자로 삼아 자기 뒤를 잇게 하였다. 여기에서 무종과 인종의 형제간 끈끈한 관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무종이 재위하는 동안에 이렇게 끈끈하고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후에 인종이 되는 황태자를 끌어 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무종 치하에서 권력을 누리는 무리는 황태자가 너무 간간하여 그가 등극한다면 몰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현재의 황태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즉 후계자가 아들로 이어져야지 동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기도는 성공하지 못하여 인종은 형 무종의 뒤를 이어 등극한다.

무종이 재위하는 동안 인종이 되는 황태자는 그저 묵묵히 참아야 했고 결국 무종은 죽고 나서 한 달 여 뒤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그런데 그 인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벌써 무종치하의 조정에서 실권을 장악하였던 탁극탁(托克托)·삼보노(三寶奴)·약소(約蘇)·보파(寶巴, 保八)·왕비(王嬪) 같은 사람을 모두 복주(伏誅)하였다. 이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주살된 이들은 법으로 보아 당연히 사형을 받을 만 했을 것이다. 특히 인종은 복주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전장(典章)제도를 변란(變亂)시키며,

백성들에게 해독을 흘려보내어 나라 전체를 그르쳤다고 생각하였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들을 복주시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권력자가 자기 할 일을 해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이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도 차례로 처벌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다. 연경사(延慶使)인 양다이제(楊多爾濟, 楊朶兒只)였는데, 그는 황제는 정치를 하는 자리이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탁극탁의 남은 무리를 또 처벌할 경우에 사람들은 아마도 새 황제는 '죽이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것이니 '제왕의 정치'는 '죽이는 것, 처벌하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꾸짖하였다. 정치란 힘 있는 사람이 어른답게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는 것이 이어지면, 일반인들은 처벌받는 사람의 벌을 받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오히려 전 조정에 대한 앙갚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제왕은 어른답게 전체를 아울러야 할 입장이네, 개인의 앙갚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제왕이라는 호칭이 붙어있지만 소인(小人)이라고 여기게 되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든 치더라도 개인의 이해(利害)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펼쳐 효과를 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치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들은 인종은 더 이상 처벌을 확대하지 않는다. 양다이제가 인종에게 아름다운 정치의 한 수를 가르쳐 준 것이다. 사실 반란세력을 정벌하고서도 수약(首惡)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중속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예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을 법으로 옴아 넣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많은 사람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구호로 많은 사람을 범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법 조항을 들먹이지만, 이를 어룬 담지 못한 보복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까? 이런 인식에서 오는 손해를 무엇으로든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처벌은 뒤로 화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장자(長者)의 정치가 우리 정치에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낙심천만(落心千萬)

떨어질락. 마음 심. 일천 천. 일만 만.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몹시 상함

난득지물(難得之物)

어려운 난. 얻을 득. 어조사지. 물건 물. 얻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

난공불락(難攻不落)

어려운 난. 칠공. 아니 불. 떨어질 락. 공격하기 어렵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상대를 지칭하는데 쓰이는 말. 비슷한 말로 철옹성, 금성탕지(金城湯池)가 있다.

유래: 통각이 황보승에게 진장을 포위,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서 진장으로 가야 한다고 하자 황보승은 진장은 작은 성이지만 난공불락의 성이라 병력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아무 피해 없이 승리해 공을 세워야 한다며 급히 서두를 게 없다고 했다.

후에 제갈량이 진장성을 함락시키려고 여러 공격을 시도하다가 탄식하면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으로 잘 알려진 백제의 관미성, 백제, 신라가 수차례 싸웠던 대야성 고구

려와 수, 당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안시성 등이 알려져 있다.

난신적자(亂臣賊子)

어지러운 난. 신하 신. 해칠 적. 아들 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치는 자식을 일컫는 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천하에 몸쓸 사람이나 역적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 맹자 등문공부부 자호변장(夫子好辯章)에 나온다.

맹자의 제자 공도자가 맹자에게 사람들이 맹자를 가리켜 논쟁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 맹자는 자신이 논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하고 이어 선대의 우임금, 주공, 공자 등 세 성인을 계승하는 것이 자신의 뜻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우임금이 홍수를 막으니 천하가 태평해졌고 주공이 오랑캐를 아우르고 맹수를 몰아내니 백성들이 편안해졌고 공자께서 춘추(春秋)를 완성하니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치는 자식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난신적자는 고규의 <공자성 춘추이 난신적자구>에서 따온 것이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에는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이 쇠해 각종 사설들이 들끓어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이를 해치는 일이 생겨났는데 공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천자의 일을 다룬 춘추를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맹자가 말한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아버이를 해치는 자식을 가리켜 난신적자라 한다.

안동종친회 원로원 임원 간담회 개최

안동종친회 원로원(元老院: 의장 권재주) 임원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署)인 7월 22일 낮 12시 안동시 광명로 24(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우숯불장어나라' 식당에 모여 장어 구이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몸 보신용으로 장어구이와 복분자 술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임원은 권재주 원로원 의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고문, 권기호, 권중덕 부의장,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영수 원로원 감사,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권영건 안동권씨종보사 보도부장, 권기원 원로원 사무국장, 권기원 안동종친회 사무국장, 이규화 종친회 사무과장 등 모두 13명이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 년 중 가장 무덥다는 대서 날 이렇게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문중의 어른들이 건강하셔야 문중이 편안하므로 건강을 위해 장어 집을 선택했는데 오늘 장어를 많이 드실 것"을 부탁했다. 권재주 원로원 의장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권철환 회장이 원로원 임원을 초청, 보신을 시켜주고 있어서 고맙기 그지없는데 모두들 고맙다는 뜻에서 박수를

보내자"고 부탁했다.

두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장어구이와 복분자 술을 권하면서 서로를 정담을 나누었다. 권철환 회장은 작년 8월 31일에도 원로원 의장과 임원 11명을 초청, 소고기 샤브샤브로 저녁을 내면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안동종친회 발전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은 이 자리에서 1인당 생활용품인 행주 다섯 장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친애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맥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마시고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안동권씨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

2025년 8월 증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7.1. ~ 7.25. 총 납부자 9명 총 37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경희(서울송파) 30,000	권동욱(부천) 30,000	권시현(광주) 30,000	
권오상(대구) 30,000	권오연(안동 서후면) 30,000	권오휴(강릉) 30,000	
권창중(제천) 30,000	시중공파 화천군 종중 130,000	권태식(양주) 30,000	

* 연간 증보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중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